

子母蓋의 研究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Jamokai* (子母蓋)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V. 高麗의 蒙首
I. 緒 論	VI. 子母蓋와 周邊語
II. 子母蓋의 解讀에 대한 諸見解	VII. 結 論
III. 子母蓋의 漢字音	參考文獻
IV. 蓋頭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and to trace the origin and meaning of *jamokai* (子母蓋).

Comparative linguistic analytical approach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Summaries of findings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re were a number of phonetic value for *jamokai* (子母蓋) in Chinese.
2. The term, *jamokai* was derived from Hebrew.
3. The meaning of *jamokai* of Koryo was originated from Hebrew word meaning woman's veil.
4. The word *jamokai* was related to Perian, Arakic, Indian.
5. It is considered that *tsi-ma-kai* (치마개) was transliterated to *tsi-məu-kai* (子母蓋) in Chinese by the author of Keirim Yusa (鷄林類事).
6. The word *jamokai* (子母蓋) of Koryo was not related to Chinese.

I. 緒 論

雞林類事の 高麗方言中에는 服飾관련 語彙도 포함되어 있어서 高麗時代의 服飾研究를 위한 귀한 資料가 된다.

雞林類事の 方言 研究는 지난 수십년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는 服飾관련 어휘도 몇 개 들어 있다.

本 論文에서는 子母蓋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研究者들은 이 子母蓋를 解讀하려고 노력하여 왔고 따라서 子母蓋의 解讀에 대한 몇 가지 見解가 있어 왔다.

本 論文에서는 子母蓋를 어떻게 解讀하였는지에 대한 見解들을 먼저 考察하고 子母蓋의 漢字음을 찾아내어 子母蓋와 類似한 말이 주변어에 있는지 찾아내어 보고자 한다. 만약 주변어에서 子母蓋와 類似한 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子母蓋와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II. 子母蓋의 解讀에 대한 諸見解

「女子蓋頭曰子母蓋」의 「子母蓋」를 어떻게 읽느냐에 대하여 方鍾玄은 이것을 「자모개」로 읽고 未詳이라 하였다(1955, p.185). 李基文은 「子母蓋」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 剪刀曰割子蓋, 斧曰鳥子蓋 이므로 夾袋曰南子木蓋는 15世紀의 「나룻」에 대응될 것이므로 이것은 南木子蓋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는 또한 「女子蓋頭曰子母蓋」도 「母子蓋」로 읽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는 위의 단어에서 「子蓋」를 接尾辭로 보았기 때문이다. (李基文, 1957, p.14)

金喆憲도 李基文의 見解에 同調하였다(金喆憲, 1962, p. 105). 陳泰夏는 「子母蓋」의 子와 母의 글자 순서는 바꾸지 않고서 子母蓋의 音値는 swi-u-ke와 ㅅ-되므로 子母蓋는 ㅅ우개(?)의 對音이 아닐까라고 推定하였다. 그러나 그는 子母蓋의 母가 版本에 따라서 母, ㅁ가 있는 것 中에서 母子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陳泰夏, 1974, p.495).

漢語로 「女子蓋頭」를 高麗方言으로 「子母蓋」라 한다는 것에서 보아도 高麗語 「子母蓋」란 말은 漢語에서 由來된 말은 아니며 漢語와 관련이 있는 말도 아니라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므로 「子母蓋」란 말은 이에 相同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高麗語음을 孫穆이 漢語로 音譯하였음이 分明하다.

그러나 女子蓋頭를 意味하는 어떤 高麗語음을 孫穆이 「子母蓋」로 漢譯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子母蓋의 漢음을 찾아보고 그 漢音과 유사한 말이 있는지 주변어에서 찾아서 그것들을 比較하여 봄으로써 高麗方言 子母蓋란 말과 주변어와의 共通要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比較方法에 의해서 共通要素를 찾는다면 雞林類事 高麗方言의 「女子蓋頭曰子母蓋」란 기록은 정확한 것이며 子母蓋는 母子蓋의 誤記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高麗 方言 「子母蓋」와 比較할 수 있는 주변어를 찾아보기 전에 「子母蓋」의 漢字음을 먼저 찾아 보기로 한다.

Ⅲ. 子母蓋의 漢字音

子音

1. 「廣韻」即里切, 「集韻」, 「韻會」, 「正韻」相似切 紙^{上聲} tzyy, tzǔ³
2. 「集韻」將吏功賃^{上聲} tzyh
3. 北宋汴梁(開封) 語音 tsi
4. William의 古音 tsai, tsi, dzai, tsit, ti, tip
5. Karlgren의 古音, tsi
6. 辭海 tz

母音

1. 「唐韻」, 「廣韻」, 「正韻」莫厚切, 「集韻」, 「韻會」莫後切 音某 有上聲 mou³
2. 「集韻」蒙哺切, 「正韻」莫胡切, 音模 虞平聲 mu²
3. 開封音(陳泰夏 p.772) məu

蓋音

1. 「唐韻」, 「廣韻」古太切, 「集韻」, 「韻會」居太切 音勾 泰^{上聲} gay(中文), kai⁴(康熙)
2. 「廣韻」古盍切, 「正韻」古沓切, 音郃 合^{上聲} gee(中文), 「正韻」古沓切 音曷 ko²(康熙)
3. 「廣韻」胡臘切 音盍 ho²(康熙), her(中文)
4. 其他 古音(William) kat, kak, kap
5. 北宋汴梁(開封) 語音 kai

위의 예에서 보면 “子母蓋”의 漢音은 여러 音으로 날 수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音이 高麗의 “子母蓋”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子母蓋」를 開封音으로 읽으면 tsi-məu-kai가 된다.

Ⅳ. 蓋 頭

「女子蓋頭曰子母蓋」에 보이는 子母蓋의 漢音을 찾아 보았다.

다음에 「女子蓋頭」라고 한 漢語의 蓋頭에 대한 中國 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蓋頭란 名稱은 이미 唐代에 出現했다고 하지만 蓋頭는 宋代에 이르러 流行하게 되었다.

蓋頭に 관한 資料에 의거하여 보면 蓋頭란 名稱안에 몇 가지 種類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幅巾과 類似的한 一種의 頭巾 種類로서 그것을 머리에 썼을때 얼굴은 보이고 頭巾의 뒷면은 등뒤로 늘어 뜨러지는 모양의 것이다. 이 첫번째 蓋頭는 幅巾과 아주 비슷한 種類이다.

두번째 種類의 蓋頭는 事物 紀原에서 方五尺의 帑羅를 머리에 인다고 說明되고 있는 소위 幘頭라고도 했던 蓋頭이다.

事物紀原의 蓋頭에 관한 說明은 다음과 같이 있다.

「事物紀原, 冠冕首飾部, 蓋頭」唐初 宮人著霧羅, 雖發自戎夷, 而全身障蔽, 王公之家亦用之, 永徽之後, 用帷帽, 後又戴卑羅, 方五尺, 亦謂之幘頭, 今曰蓋頭, 凶服者亦以三幅布謂之, 或曰, 白碧絹, 若羅也.

方五尺 卑羅를 머리에 이는데 이 蓋頭는 婦女의 出入用이었다.

또, 한 種類의 蓋頭는 隋唐代의 霧羅와 같은 種類인데 이 蓋頭는 천으로 몸을 감추는 것이다. 隋唐代의 霧羅는 全身을 가렸던 것이었던데 比하여 宋代의 蓋頭는 半身을 가렸다고 함으로 霧羅와 이 蓋頭의 差異는 그 크기에 있었을 뿐 그 形制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霧羅는 南北朝 時代에 中國에 流入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中國에 들어 왔을 때에는 그 본 이름이 中國에 들어왔고 그것은 隋唐代까지도 漢語로 音譯된 霧羅란 말이 使用되면서 이 말을 漢語로 蓋頭라고 불렀던 것으로 해석된다.

霧羅란 말은 아라비아어 *maqna*의 漢語 音譯이다. 霧羅는 漢語로 霧帷 또는 霧羅라고도 寫 音되어 사용되었다.

아라비아의 *maqna*는 덮어씌울 때 앞쪽이 열려있고 쓰개 中에서는 아주 큰 종류의 쓰개에 속한다.

宋代의 蓋頭에 관하여는 周輝의 清波雜志에서도 다음과 같은 說明이 보인다.

士大夫於 馬上 披涼衫, 婦女步通衢, 以通幅紫羅障蔽半身, 俗謂之 蓋頭, 蓋唐帷帽之制也.

清波雜志에서는 婦女가 出入할 때에 通幅紫羅로써 半身을 가리는 것을 俗稱 蓋頭라 하며 그것은 대체로 唐代의 帷帽之制라고 說明하였다.

通幅紫羅로 半身을 가리는 것은 唐代의 帷帽와 같은 種類가 아닌데 清波雜志의 저자가 唐代의 帷帽를 혹시 帽 종류가 아닌 一種의 veil 종류로 이해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한 종류의 宋代의 蓋頭는 新婦의 婚禮用이 있었다.

婦人의 婚禮日에 新婦의 머리에 덮어씌우는 巾을 蓋巾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俗稱 蓋頭라고 하였다.(夢梁錄 嫁娶) 이 新婦의 蓋頭는 一種의 面衣 卽 veil로 解析된다.

V. 高麗의 蒙首

한편 高麗風俗 記行錄인 高麗圖經의 蒙首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高麗婦人의 皂羅蒙首는 三幅으로 만드는데 幅長은 8尺이고 머리 꼭대기에서 아래로 늘어뜨리며 얼굴만 보이도록 하고 땅에 끌린다(卷20, 婦人, 貴婦). 그러나 婢妾의 蒙首는 늘어뜨리지 않고 그것을 접어서 머리 꼭대기에 얹었다(同揭書, 婢妾). 또한 公卿貴人의 妻가 말을 타고 出入할 때의 皂羅蒙首는 馬上을 덮고 남으며 蒙首위에다 笠을 썼으며 王妃夫人만이 紅色으로 장식한 蒙首를 使用하였다. 高麗의 蒙首之制를 보면 霧羅의 遺法인 것 같다(卷 22 雜俗 1, 女騎).

高麗圖經의 高麗婦人 蒙首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貴婦의 蒙首는 皂羅로 幅은 넓고 길이는 땅에 끌리며 얼굴만 보이도록 하였고 머리 꼭대기에서 부터 온몸을 전부 가린 것이었다. 卽 高麗圖經의 說明에서 보면 高麗 貴婦의 蒙首는 全身을 障蔽하는 것이므로 中國의 霧羅와 相

近하고 또한 아라비아 女史의 *magna*'와도 그 形制와 使用法이 같았던 것이 발견된다. 또한 高麗 婢妾의 蒙首에 관한 기록에서 그 크기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늘어 뜨리지 않고 접어서 머리 정수리에 얹었다고 하였는데 이 蒙首는 方五尺阜羅를 머리에 이는 幘頭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宋代의 蓋頭와 그 使用法이 同一한 것으로 해석된다.

高麗 公卿貴人の 妻가 말을 타고 出入할 때 착용하였던 皂羅蒙首는 그 길이가 말을 덮고도 남을 만큼 길었고 착용방법은 皂羅蒙首 위에다 笠을 썼다.

徐競은 高麗의 蒙首之制가 鞞羅의 遺法인 것 같다고 推定하였는데(卷22, 雜俗1, 女騎) 貴婦의 蒙首는 鞞羅와 相通하고 婢妾의 蒙首도 그 使用法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種類는 긴 천 조각 일 것이므로 徐競의 推定이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된다.

公卿貴人の 妻가 말을 타고 出入할 때의 皂羅蒙首는 그 길이가 말을 덮고도 남을만큼 길었고 蒙首위에다 笠을 썼다. 이 蒙首는 唐代婦人들이 많이 使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中國의 帷帽制와 同一한 것은 아니다. 帷帽에는 帽끝에 帽裙이 붙어 있었다.

高麗王妃夫人의 蒙首에 대해서는 王妃夫人만이 紅色으로 蒙首를 장식하였다는 것만 說明되어 있어서 王妃도 公卿貴人の 妻와 같이 蒙首 위에다 笠을 썼는지 確實히 알 수는 없으나 王妃夫人의 蒙首를 紅色으로 장식한 것만으로도 王妃와 다른 어떤 婦人의 蒙首와 구별되었음으로 말을 타고 出入할 때의 王妃夫人의 蒙首도 蒙首 위에다 笠을 썼을 것이라 해석된다.

위의 記錄에서 본 바와 같이 高麗婦人의 蒙首와 蓋頭를 알기 쉽게 表現하면 一種의 veil인 것이다.

VI. 子母蓋와 周邊語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鷄林類事의 研究者들은 「女子蓋頭曰子母蓋」에 있는 「子母蓋」를 「母子蓋」로 「夾帶曰南子木蓋」의 「南子木蓋」를 「南木子蓋」의 誤記일 것이라고 보았다.

研究者들이 「子母蓋」를 「母子蓋」로 「南子木蓋」를 「南木子蓋」의 誤記로 생각하였던 理由는 鷄林類事에는 「剪刀曰割子蓋」「斧曰烏子蓋」「夾帶曰南子木蓋」「女子蓋頭曰子母蓋」등과 같은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들에서 「子蓋」가 있는 「割子蓋」「烏子蓋」에서 「子蓋」를 接尾辭로 보았기 때문에 「南子木蓋」도 「南木子蓋」로 하여 李朝語 「나 못」에 대응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女子蓋頭曰子母蓋」의 「子母蓋」도 「母子蓋」의 誤文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本 研究者는 「女子蓋頭曰子母蓋」라고 있는 原文이 誤文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 말에서 蓋字에 해당되는 「개」接尾辭가 붙은 말은 古語에도 있고 方言에도 있다. 몇개의 예를 들면 남닐개, (南飛介, 南羅介), 오디의 方言인 오덜개 오들개, 오두개, 오돌개, 오질개, 오즘개, 오즘새, 안새(胞衣), 응텡개(응덩이의 함복 방언) 등에서 볼 수 있다.

주변어에서 高麗語 「子母蓋」와 유사한 말을 찾아 보면 Persia 語와 Urdu 語에 *jamah*, clothing, garment가 있다. 이 말은 *jama*, *jamah*로 印度의 白色綿으로 만든 gown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jamawar*란 印度語도 「子母蓋」와 유사한 말이다. 이 말은 cashmere 毛로 짠 織物 이름이기도 하지만 毛織物로 짠 shawl을 意味하기도 하며 또한 *jamawar*를 Turkish shawl 이라고도 한다.

19세기에 알제리아 유대인 婦人들이 사용했던 caïma란 머리쓰개가 있다. 이것은 15세기에 유럽 女子들이 썼던 hennin과 비슷한 것으로서 긴 丹錐形 모양의 쇠로 틀을 만들어 그 위에 천을 씌워 늘어 뜨린 것이다.

高麗의 「子母蓋」와 유사한 말은 아라비아 語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Ar. shmagh란 말은 그 意味도 子母蓋와 同一한 head cloth이다. 다만 高麗語 「子母蓋」는 女子의 머리에 쓰는 천이고 Ar. shmagh는 男子의 head cloth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高麗語 「子母蓋」와 比較할 수 있는 주변어로는 古代 回브리語 𐌆𐌆𐌆 woman's veil가 있다. 이 말은 舊約聖經(이사야, 47², 雅歌, 4¹³, 6⁷)에서 발견되는 말이다.

高麗語 子母蓋가 子母에 接尾語 蓋가 붙은 複合語라면 Heb. 𐌆𐌆𐌆는 「子母」에 相應되는 말이다. 이 Heb. 𐌆𐌆𐌆의 高麗語 音譯이 「子母」이며 이 「子母」에 接尾語 蓋가 붙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高麗語 「子母蓋」의 「子母」와 Heb. 𐌆𐌆𐌆는 그 音相이 거의 같고 이 두 말의 意味도 同一하므로 「子母蓋」란 高麗語는 Heb. 𐌆𐌆𐌆의 借用語로서 𐌆𐌆𐌆의 音뿐만 아니라 그 意味도 同一한 것을 借用한 것이라 해석된다.

「子母蓋」의 蓋는 高麗의 接尾語였다고 推定할 수도 있다. 그러나 「子母蓋」란 말에 국한시켜서 接尾語에 해당되는 이 蓋란 말을 볼때 앞의 Heb. 𐌆𐌆𐌆와 관련있는 말의 音譯일 것이라 가능성도 있다. 위의 Heb. 𐌆𐌆𐌆에 接尾語가 붙으면 이 말은 𐌆𐌆𐌆가 된다.

이 단어의 末音 ㅈ은 高麗語 「子母蓋」의 蓋音과 類似하기도 하고 이 두 단어에 유사한 接尾語가 붙은 것까지도 같다.

高麗語 「子母蓋」와 Heb. 𐌆𐌆𐌆는 이 두 單語의 音價가 類似할 뿐만 아니라 그 意味도 同一하다.

그러므로 高麗語 「子母蓋」란 말은 𐌆𐌆𐌆에 接尾語가 붙은 𐌆𐌆𐌆의 借用語로서 이 말의 高麗語 音譯일 수도 있다.

朝鮮館 譯語에 裙을 扯罵라고 譯하였다. (文璇奎, 朝鮮館 譯語 研究 衣服門, 1972. pp. 291~2) 그러나 鷄林類事 高麗 方言에는 「裙曰裙」이라고 있어 孫穆이 鷄林類事を 記錄했던 12世紀에는 고려에서 裙을 漢語 그대로 裙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朝鮮館 譯語의 치마(扯罵)란 記錄은 대단히 중요하다. 高麗語 子母蓋의 音を 推定하는데도 귀한 단서가 될 뿐 아니라 「子母蓋」의 接尾語 「蓋」 音이 탈락한 「子母」가 朝鮮館 譯語가 편찬되었다고 추정되는 15세기 初의 裙을 의미하는 扯罵란 말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資料이기도 하다.

朝鮮時代의 치마에 대한 기록은 赤尗, 赤麻, 초마, 추마, 치마 등으로 나타난다. 몇가지 예를 들면 朝鮮初期 世宗朝에는 赤尗(世宗實錄, 卷9, 2年 庚子, 藍羅袂赤尗...白苧布赤尗...), 四禮便覽에는 赤麻, 또는 초마(訓蒙字會 中, 13, 纒초마호(屨)), 추마(訓蒙字會 中, 22, 추마상(裳)), 치마(新增類合 上, 31 치마 裙)라는 기록들이 보인다.

아라비아 語 shmagh라는 말도 Heb. 𐌆𐌆𐌆와 관계가 있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高麗語 子母蓋와 유사한 말은 주변어에서도 발견되었다.

VII. 結 論

이상의 結果와 論議를 綜合하여 結論을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子母蓋의 漢字音은 여러 音으로 날 수 있다. 子母蓋란 말이 記錄되었던 高麗時代와 同時代의 宋代音을 따라서 子母蓋를 漢字音으로 읽으면 開封音으로 *tsi-məu-kai*가 된다.
2. 鷄林類事의 高麗方言 「女子蓋頭曰 子母蓋」란 말은 漢語에서 由來된 말이 아니다.
3. 高麗語 「子母蓋」는 「母子蓋」의 誤記가 아니다.
4. 高麗語 「子母蓋」와 類似한 音相을 가진 말은 주변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5. 高麗語 「子母蓋」는 그 音相이 Heb. קִימָה 과 거의 같고 이 두 말의 意味도 각각 “女子蓋頭”와 “woman's veil”로 同一하다. 그러므로 高麗語 「子母蓋」란 말은 Heb. קִימָה 의 借用語로서 그 本來의 意味도 함께 借用하였으며 그 말을 高麗語로 音譯한 것이 子母蓋이다. 이로써 高麗語 子母蓋의 源은 漢語圈에 있는 것이 아니고 西아시아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6. 高麗語 「子母蓋」의 語源은 “woman's veil”이며 고려에서 子母蓋란 말은 이 本來의 意味대로 使用되었던 것이 발견되었다.
7. 아라비아어 *shmagh*도 高麗語 「子母蓋」와 類音이다. 그 意味도 man's head cloth로서 子母蓋와는 性別의 차이만 있을 뿐 同一한데 비추어 볼 때 *shmagh*도 קִימָה 와 관련이 있는 말일 것으로 생각된다.
8. 高麗語 子母蓋란 말은 高麗音으로 치마개(*tsi-ma-kai*)였던 것을 孫穉이 漢字音으로 이에 상응하는 子母蓋로 記錄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參考文獻

1.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서울, 새문사, 1990.
2. 강길운, “길약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Ⅱ)”, 수원대 논문집, 1984.
3. 강희자전.
4. 김방한, 어원론, 민음사, 1990.
5. 김방한, 한국어의 계통, 서울, 민음사, 1983.
6. 김부식, 삼국사기.
7. 김철현, 계림유사연구, 「국어국문학」 25, 1962.
8. 남광우, 고어사전.
9. 노길태 언해.
10. 동문유해.
11. 몽어유해.
12. 문선규, 조선관역어 연구, 경인문화사, 1972.
13. 박통사 언해.
14. 방중현, 계림유사 연구 「동방학지」 2 연대 동방학 연구소.

15. 방학근,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1978.
16.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하, 동광출판사.
17. 서금, 고려동경.
18. 손목, 계림유사.
19. 방언집석.
20. 신기철, 신용철, 국어대사전 상·하.
21. 역어유해.
22. 유창순, 이조어사전.
23. 왜어유해.
24. 이기문, 계림유사의 고찰 「일석 이희승선생 송수기념 논총」.
25. 이여성, 조선복식고, 서울, 백양당, 1947.
26. 진태하, 계림유사연구.
27. 杉本正年, 東洋服裝史 論攷, 東京, 文化出版局, 昭和 59년.
28.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29. 勝田豊八, 朝鮮語方言の研究 上, 下.
30. 勝田豊八, 東西文渉史.
31. Bible.
32. Boucher, Francis, History of 2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ams, Publishers, n.d.
33. Brown, Franci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Univ. Press, 1978.
34. Kalgren, Analytic Dictionary of Chinese and Sino-Japanese.
35. Kim, Jin-Goo,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 of Wisconsin, Madison, Wis., 1977
36. Picken, Mary Bookers, The Fashion Dictionary, New York, Funk & Wagnalls, 1973.
37. Ross, Heather Colyer, The Art of Arabian Costume, Switzerland, 1981.
38. Wignate, Isabel B. ed. Fairchild's Dictionary of Textiles,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Inc., 1967.
39.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40. Yarwood, Doreen,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1983.